

##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전남, e-모빌리티 육성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심의·의결 ...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정부가 2040년까지 앞으로 20년간 국토 발전 방향을 '성장·개발'이 아닌 '균형·협력·스마트·혁신'으로 설정했다. 국토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거점·권역의 지정 없이 지자체가 광역 연계·협력 사업들을 제안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계획과 크게 달라진 점이다. 규제특구, 관광산업에 방점을 찍고,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 등을 반영했으며,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는 방안을 포함한 시선도 특징이다. <관련 기사 3면>

다만 그동안 역대 정부의 수도권-충청권-영남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 및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으로 인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던 호남권, 강원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미흡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도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만을 언급하는데 그쳤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 1972년 제1차 계획

을 시작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돼 온 국토종합계획은 제5차 계획을 통해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게 된다.

이번 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5+2 광역경제권' 대신 지자체간, 중앙-지방간 자유로운 연대와 협력을 통한 '제안사업 추진'을 핵심으로 했다. 국토부가 이날 예시로 발표한 산업·경제, 환경, 문화·관광, 도로·인프라, 복합 등 26개 사업 가운데 광주-전남과 연관된 것은 ▲남해안 광역 문화관광권 개발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 ▲남해안권 통행시간 단축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철도포함) ▲동서 내륙간선도로 확충 ▲동서 내륙철도 확충 ▲남해안 고속화철도(부산-광주)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산업 및 교통망 구축 등 8개다. 이들 사업은 모두 기획 단계로, 반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전남 'e-모빌리티, 에너지산업' 등 규제자유특구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서남해안 해상복합관광거점 조성, 남해안 연계협력권 등을 통해 지역관광산업 발전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율주행차, 울산 수소 그린 모빌리티, 전북 새만금권 해양관광거점 조성 등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간 환경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부담이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를 전극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전히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토부는 2020년 수립 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2040)'에서 이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 승인 후 2020년 상반기 각 중앙부처가 5년 단위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2021년부터 정부부처,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3일 오후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열린 '5·18 비공개 사진 대국민 설명회'에서 이성춘 5·18기념재단 자문위원이 사진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5·18 문서 2321건 목록만 공개?

국가기록원, 기사사 이관 문건 공공기관들 진상규명 소극적 관련 자료 보유 여부 안 밝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문건이 2321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록원은 조만간 모든 문건을 공개한다는 입장이어서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6면>

3일 국가기록원 등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이관 문건은 ▲군 집압 관련 및 정국대체 관련 목록 ▲정문화 등 국회 대비용으로 추정되는 자료 ▲주요 인물 및 단체 관련 자료 ▲경찰 관련 문서 등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1980년에 생산된 '광주 소요사태 상황일지 전판', '광주사태시 전 교사 정보처 일지', '광주사태분석(2급기밀해제)', '사망자 심사보고, 사망자 인적 사항, 지휘권 발동지시', '5.17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록', '전투상보(20사단, 31사단)', '목포시장과 폭도들간의 협상 내용', '전남도청 상황일지', '김대중과 정동

년 연계 및 내란모의 과정', '김대중-정동년 등 주요 피의자 관련자 심문조사-의견서-진술서-공판결과' 문건 등이 있다.

80년 이후 작성된 문건으로는 '5.17총정 병력 출동'(1981년 작성), '5.18 피고 소인축 피○○ 목사 증인(헬기사격)반향'(1988), '미국의 군투입 승인'(1988), '주남마을 미니버스 집단 사살 상황 종합 검토'(1989) 등이 있다. 또 청문회 등 국회 대비용으로 추정되는 자료는 '5·18 정점별 대응 논리'(1988), '5.17조치 불가피성'(1988), '광주특위 청문회 예상 질의 답변'(505부대장-1988), '5·18 3주기 앞둔 광주지역 교계, 지역 동정'(1983) 등이 포함됐다.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날 오후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사진첩 대국민 설명회에 참석해 "내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진상규명을 위한 2탄으로 정부에서 1980년부터 2006년 까지 생산한 5·18 관련 문건 목록 2321건과 일부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699개 공공기관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보유 현황을 요청한 결과,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 국정원, 경찰청, 대검찰청 등 60개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가 있다는 답신을 받았다. 확인된 자료는 문서 1만691건, 간행물-도서 3341건 등 3만351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체의 절반이 넘는 375개 기관이 5·18 관련 자료 보유 여부에 대해 아예 회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5·18 진상 규명에 공공기관들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올 수능 수학 어려웠고 영어 쉬웠다

수능 만점자 15명 ... 오늘 성적표 배부

지난달 14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 수학 나형은 예상대로 매우 어려웠고 수학 가형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돼 까다로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는 작년보다는 쉬웠지만 여전히 난도가 상당했으며, 영어는 대체로 평이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기사 7면>

지난해 '불수능'을 유발했던 국어와 영어가 쉬워진 반면, 인문계열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나형이 매우 난도가 높아 '불수능'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국어와 수학 성적이 수시 최저학력 미달과 정시 전형 등 대입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0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은 국어 140점, 수학 가형 134점, 수학 나형 149점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점수다. 시험이 어렵게 출제돼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가 높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게 형성되면 표준점수는 낮아진다.

올 수능의 경우 국어가 지난해 150점에 비해 크게 낮아지긴 했으나, 2년 전에는 134점이었던 걸 감안하면 결코 쉽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현 수능 체제가 도입된 2005학년도 이래 두 번째로

표준점수 최고점을 기록했다.

특히 수학 나형 표준점수 최고점은 2009학년도 수능(158점) 이후로 치러진 11번의 수능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139점보다 무려 10점이 오르면서 매우 어려웠다. 작년 표준점수 최고점 133점으로 까다로웠다는 평가를 얻었던 수학 가형도 올해 1점이 더 올라 쉽지는 않았다는 분석이다.

영어 1등급 비율은 7.43%로, 지난해(5.30%)보다 다소 높아졌다. 영어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3만5796명으로, 작년(2만7942명)보다 증가했다.

올해 수능 만점자는 15명으로, 재학생 13명, 졸업생 2명이었다. 사회탐구를 선택한 수험생은 11명, 과학탐구를 선택한 수험생은 4명이었다. 역대 가장 어려웠다는 지난해 수능에서는 만점자가 9명이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일 수험생들에게 성적표를 배부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우체국 예금

### 나를 알아주는 착한금융

소중한 자산, 잘 지켜주고 돌려주고- 금융의 기회, 누구에게나 열어주고- 당신 결연 늘 우체국금융이 있습니다.

**우체국금융**

할정도의 혜택

- 월급은 모르고, 직급은 모르고...
- 여행후로는 왔고, 자금계획은...
- 신혼에 적당한 상속 금융 원하시는?
- 자신은 인원이 희고인데...
- 책임부터 자산관리까지 우체국금융에 맡기세요!

1588-1300

우체국 쇼핑

참 가까운 우체국 쇼핑

안심 쇼핑 1번지 우체국 쇼핑

우체국보험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

### 당신을 우체국FC(보험설계사)로 모십니다.

서수원우체국 FC 이재성, 대구수성우체국 FC 김영숙, 정동우체국 FC 김이연, 광화문우체국 FC 신이연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지원문의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우체국으로 문의

# EMS

## 스마트 접수 서비스

EMS 스마트 접수 서비스 이용하고, **요금 5% 할인받으세요.**

### 우체국 준등기우편서비스

일반우편물을 수취인 주소지의 수취함 등에 배달한 경우, 발송인에게 배달결과를 카카오톡, SMS 등으로 제공하는 우편서비스입니다.